

저성취 대학생 대상 성적향상 프로그램 효과 연구: G대학교의 ‘러닝하이’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the Program to Improve Low-achievers' Academic Achievement : Focused on 'Running High' Program of G University

서은희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Eun Hee Seo(ehseo@gachon.ac.kr)

요약

본 연구의 저성취 대학생 대상 성적향상 프로그램인 ‘러닝하이’는 이전 학기 성적이 2.5 미만인 학생들에게 1:1 학습컨설팅과 성적 우수자의 특강을 제공하며, 학습자 본인이 지정한 1개 과목의 성적이 목표 학점을 달성한 경우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성공 경험과 학습동기를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그릿, 자아탄력성이 사전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이 프로그램에서 목표를 달성한 집단과 미달성 집단간의 학업성취도, 그릿,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G 대학의 ‘러닝하이’에 참여한 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검사를 진행하고 성적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러닝하이’에 참여한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그릿은 유의하게 향상된 반면, 자아탄력성은 사전과 사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러닝하이’에 참여한 학생 중 목표를 달성한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그릿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러닝하이’를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저성취 | 학업성취도 | 그릿 | 자아탄력성 | 대학생 |

Abstract

The program for low-achievers, named 'Running high' is to provide college students whose GPA was lower than 2.5 with 1:1 learning consultation and special lectures of high achievers. Especially, it supports scholarship only for students who attain the target record of a certain course which they cho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or not academic achievement, grit, ego-resilience of participants in 'Running high' would be more advanced than before. This study also compared academic achievement, grit, ego-resilience between participants who attain the goal of the program and participants who can not attain it. 110 college students joining in 'Running high' responded pre and post surveys of grit and ego-resilience. Their data of academic achievement also were gathered.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grit of participants in 'Running high' were advanced more than before, but not ego-resilience. The differences of academic achievement and grit between participants who attained the goal of the program and participants who could not attain it were significant, but not ego-resilience.

■ keyword : | Low Achiever | Academic Achievement | Grit | Ego-resilience | College Students |

I. 서론

최근 들어 학사경고자를 포함하여 저성취 학습자에 대한 고등교육기관의 관심이 높다. 2011년 대학 자체평가에 학사경고자에 대한 조치가 평가지표로 포함되면서 본격화된 저성취 학습자에 대한 관심은 각 대학내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중심으로 학사경고자들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증거로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에서 학업 저성취자들을 위한 여러 중재방안들이 최근 들어 많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1].

이러한 노력으로 학사경고자의 수가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학사경고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도 탈락하고 있다. 대학알리미의 자료에 따르면, 학사경고로 중도 탈락하는 대학생 수는 2014년 4,151명, 2015년 3,563명, 2016년 3,361명에 이른다. 이는 학사경고자 및 학사경고 잠재 위험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하며 기존의 학사경고자 대상 프로그램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학사경고자 대상 프로그램은 이미 문제가 발생한 후의 교정적 성격이 강하며, 문제의 심각성 정도가 커서 외부 개입을 통한 변화도출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학사경고' 자체를 징벌적인 의미로 받아들여 위축, 자신감 상실, 진로 선택의 기회 제한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2], 학습된 무기력으로 누적적으로 학사경고를 받아 수강신청이 제한되거나 제적되기도 한다[3].

따라서 학업적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저성취 학습자들을 위한 중재방안 개발이 요구된다. 그러나 저성취 학습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연령이 낮은 유아[4], 초등학생[5]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며, 일부 중학생[6]과 고등학생[7]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고, 저성취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저성취 대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학사경고를 이미 받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학사경고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주로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코칭, 특강 등의 학습상담[8-12], 전문가의 1:1 학습컨설팅[13], 또래간의

학습공동체 프로그램[14]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저성취 대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학업 저성취 대학생들을 위한 일대일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한 박덕희(2017)의 연구와 주영아, 정희진, 황선희, 김영혜(2013)의 저성취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 전략 및 자기결정성 증진 집단상담 효과 연구에 불과하다[1][15]. 따라서 저성취 대학생들을 위한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요구되며, 그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학년평량평균이 2.5 미만인 저성취 대학생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성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사경고자 또는 저성취 관련 선행연구들의 중재 프로그램들은 주로 학습공동체, 학습컨설팅, 개인 또는 집단상담 등의 외부 개입 위주로 구성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도 의미가 있고 효과적이겠지만, 성인 또는 또래에 대한 저성취 학습자의 의존성을 높일 우려가 있고,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동기유발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프로그램의 높은 중도탈락율을 통제하기 어렵고,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스스로의 성취감을 느끼기 어렵다는 한계점들을 가진다. 조민아, 고은영, 서영석(2012)는 저성취 대학생들에게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과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16]. 따라서 적극적으로 외부에서 개입하여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또한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Barouch-Gilbert (2016)와 Houle(2013)는 학사경고자들이 학사경고를 실패로 해석하여 자신의 학업적 능력에 대한 믿음이 매우 낮으므로 이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방안이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17][18]. 학사경고 대학생 관련 국내외 논문 51편을 분석하고 국내 대학 교수학습센터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집한 이용진 등(2017) 또한 향후 학사경고 대학생을 위한 교육적 개입 프로그램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변인으로 자기조절능력과 함께 자기효능감을 언급하였다[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모델 관찰, 언어적 설득, 성공 경

험에 의해 향상된다[20]는 점에 집중하여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치와 더불어 학업적으로 성공한 또래의 모델링과 개인의 잠재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습 전문가의 개별 컨설팅이 복합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는 저성취 학습자 본인이 지정한 1개 과목의 학점이 목표에 달성할 경우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성공 경험과 학습동기를 고취시키고 궁극적으로 학업성취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교수학습개발센터 전문가의 1:1 학습컨설팅 제공과 전공별 성적 우수자의 학습전략에 대한 특강을 참여토록 함으로써 학습기술의 모델링과 외부인의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실패 극복의지와 노력 지속력을 키우고자 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본 연구에서 기대하는 성과변인은 첫째, 학업성취도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저성취 학습자인 만큼 프로그램을 통해 얼마나 학업성취도가 향상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 변인은 그릿(grit)으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힘을 뜻한다[21]. 세 번째 변인은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으로, 갈등상황이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잘 견디고 변화된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힘을 의미한다.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최근에 소개된 이 그릿과 자아탄력성은 개념적으로는 저성취 학생이 갖춰야 할 특성인 자기통제력, 긍정적 자아개념, 노력조절[20], 학업적 자기효능감[22]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23][24]과 학업성취도[25][26]를 예측하므로, 저성취 대상 성적향상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변인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G 대학교의 저성취 대학생을 위한 성적향상 프로그램인 '러닝하이'에 참여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그릿,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사전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러닝하이'에서 목표를 달성한 집단과 미달성 집단간의 학업성취도, 그릿,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연구는 성적향상 프로그램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한 증거기반 연구로서 성적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 방침과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G 대학교 학생들 중 이전 학년평량평균(GPA)이 2.5 미만(최대 4.5)인 저성취 학생들로서 성적향상 프로그램인 '러닝하이'에 참여한 학생 110명이었다. 이 중 학습목표를 달성하여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은 27명(24.5%)이었고, 학습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은 83명(75.5%)이었다. 위 학생들에게는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으며, 검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이 58명(52.7%), 여학생이 52명(47.3%)이었고, 학년별은 1학년(이전학기 성적이 있어야 하므로, 모두 직전학기 휴학생임)이 12명(10.9%), 2학년이 61명(55.5%), 3학년이 25명(22.7%), 4학년이 12명(10.9%)이고, 전공계열별로는 경영대학이 11명(10.0%), 사회과학대학이 18명(16.4%), 인문대학이 2명(1.8%), 법과대학이 5명(4.5%), 공과대학이 20명(18.2%), 바이오나노대학이 16명(14.5%), IT대학이 28명(25.5%), 예술대학이 4명(3.6%), 간호대학이 1명(0.9%), 보건과학대학이 5명(4.5%)이었다.

2. 측정도구

2.1 그릿(Grit)

그릿을 측정하기 위하여 Duckworth 등(2007)이 개발한 척도의 축소판인 Grit-S (Duckworth & Quinn, 2009)을 하혜숙 외(2015)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데, 흥미유지는 하나의 목표나 관심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정도를 말하고, 노력지속은 어려움이나 장애물을 이겨내는 인내와 끈기를 의미한다(Duckworth et al., 2007). 이 척도는 총 8문항이며, 전체 신뢰도는 .79이었다. 척도의 형식은 자기보고식 Likert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다.

2.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은석과 김성희(2012)의 대학생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목표지향성, 긍정적 사고, 정서조절, 의사소통방식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목표지향성은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동기화하는가를 측정하고, 긍정적 사고는 자신과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인지하는가를 측정하며, 정서조절은 부정적인 정서를 스스로 잘 통제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고, 의사소통방식은 자신을 둘러싼 타인들과 적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가를 측정한다(이은석, 김성희, 2012). 이 척도는 총 32문항이며, 전체 신뢰도는 .87이었다. 척도의 형식은 자기보고식 Likert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다.

2.3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 전인 2017년 2학기과 프로그램 참여 후인 2018년 1학기 전체 수강과목에 대한 학년평량평균 자료를 활용하였다. 학년평량평균의 분포는 0점에서 4.5점이며, 연구대상의 2017년 2학기 최저점은 0.39, 최고점은 2.5점이고, 2018년 1학기 최저점은 0.42, 최고점은 4.31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성적향상 프로그램인 '러닝하이'는 G대학교의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Bandura(1997)의 사회인지 학습이론에 근거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모델 관찰, 언어적 설득, 성공 경험으로 향상되므로 또래 특강을 제공하여 저성취 대학생들에게 학업적으로 성공한 또래를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 전문가의 개별 컨설팅으로 개인의 잠재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의 그림과 자아탄력성 향상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학업성취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설정한 성취목표를 달성할 경우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직접적인 성적 향상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인 운영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학기 초에 신청

공지를 내어 신청자를 모집하였다. 신청자는 이전 학기 학년평량평균이 2.5이하인 학생으로 제한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저성취 학생은 본인이 수강하는 과목 중 성적 향상 기준으로 할 1개 과목을 지정하여 본 프로그램을 신청하였다. 지정 과목은 전공 및 전공 관련 과목으로 한정하였다. 참여 신청한 학생들은 학습지원 담당 연구원이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여 프로그램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학생들은 학습 성찰 보고서를 중간고사 기간에 1차례, 기말고사 기간에 1차례 제출하였다. 학기 중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참여자의 목표달성을 돕기 위해 학습법 특강 4회(성적우수자 학습법 성과 공유회, CTL과 함께하는 공부전략, A+리포트 작성하기,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발표향상전략)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원이 참여자에게 다차원 학습전략검사인 MLS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습상태를 진단하고 교정방법을 제시하는 학습컨설팅 1회를 지원하였다. 학기종료 후 지정 과목의 성적이 A+인 경우 30만원, A인 경우 20만원, B인 경우 1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였다. 다음 [표 1]은 러닝하이 프로그램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러닝하이 프로그램 활동

시기	프로그램 내용
신청	-대상: 직전학기 GPA 2.5 이하 저성취 학생 -내용: 성적 향상 목표 과목 1개를 지정하여 신청
활동	-학습 성찰보고서 2회 제출 -학습법 특강 4회 참석 -학습컨설팅 1회 참가
결과	-목표 과목 성적에 따라 장학금 차등 지원

4. 분석방법

본 연구 대상은 모두 '러닝하이'라는 저성취 대학생 대상 성적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로, 이들은 다시 연구의 목적에 따라 목표달성집단과 목표 미달성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목표달성집단은 '러닝하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자신이 지정한 교과에서 B+이상의 학점을 받아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며, 목표 미달성집단은 '러닝하이' 프로그램에 참여는 했으나 자신이 지정한 교과에서 B+이상의 학점을 받지 못해 장학금을 받지 못

한 학생들이다. 사전 검사는 ‘러닝하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실시되었으며, 사후 검사는 기말고사 기간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구하고,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성적향상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그림, 자아탄력성의 향상도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시행하였으며, 성적향상 프로그램 참여자 중 목표 달성 집단과 미달성 집단의 학업성취도, 그림, 자아탄력성의 향상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다음 [표 2]은 ‘러닝하이’ 참여 집단(목표달성 집단과 미달성집단)의 기술통계치다.

표 2. 집단별 사전과 사후 학년평량평균, 그림, 자아탄력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시기	변인	목표달성 집단		목표미달성집단		전체 집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사전	2017-2성적	2.18	.45	2.10	.47	2.12	.47
	그림	2.93	.53	2.88	.59	2.88	.59
	자아탄력성	3.75	.49	3.60	.36	3.65	.41
사후	2018-1성적	3.43	.59	2.66	.68	2.85	.74
	그림	3.43	.55	3.13	.81	3.30	.68
	자아탄력성	3.82	.41	3.79	.50	3.81	.44

1. ‘러닝하이’ 프로그램의 효과

[표 3]은 성적, 그림, 자아탄력성의 사전-사후 평균차이이다.

표 3. 성적, 그림, 자아탄력성의 사전-사후 평균 차이

	평균 차이	표준 편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t
			하한	상한	
성적	.74	.78	.59	.88	9.75***
그림	.42	.56	.16	.52	3.87***
자아탄력성	.16	.35	-.03	.19	1.49

***p<.001

[표 2]에서와 같이 ‘러닝하이’ 참여자의 사전-사후 학업성취도의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학업성취도 평균이 2017년 2학기에 2.12, 2018년 1학기에 2.85로, 평균차가 .74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9.75, p<.001$). 즉 ‘러닝하이’ 참여 후 학업성취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러닝하이’ 참여자의 사전-사후 그림의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사전 그림 평균이 2.93, 사후 그림 평균이 3.43으로, 평균차가 .34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87, p<.001$). 즉 ‘러닝하이’ 참여 후 참여자의 그림 수준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러닝하이’ 참여자의 사전-사후 자아탄력성의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사전 자아탄력성 평균이 3.65, 사후 그림 평균이 3.81로, 평균차가 .16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49, p>.05$). 즉 ‘러닝하이’ 참여 후 참여자의 자아탄력성 수준이 유의하게 향상되지 않았다.

2. ‘러닝하이’ 목표달성집단과 미달성집단의 차이

‘러닝하이’ 참여자 중 목표를 달성한 집단과 달성하지 못한 집단의 향상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우선 집단간 사전 학업성취도와 그림,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2학기 GPA $t=.76, p>.05$; 그림 $t=.37, p>.05$; 자아탄력성 $t=1.40, p>.05$).

표 4. 러닝하이 목표 달성집단과 미달성 집단의 학업성취도, 그림, 자아탄력성 향상도 비교

	평균 차이	차이의 표준 편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t
			하한	상한	
학업성취도 향상도	.77	.16	.45	1.10	4.77***
그림 향상도	.43	.17	.09	.78	2.52***
자아탄력성 향상도	-.05	.12	-.29	.19	-.41

***p<.001

[표 4]에서와 같이 ‘러닝하이’ 참여자 중 목표달성 집단과 미달성 집단의 학업성취도 향상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두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였다($t=4.77, p<.001$). 즉 목표달성 집단의 전체 학업성취도가 미달성 집단보다 더 많이 향상되었다. ‘러닝하이’ 참여자 중 목표달성 집단과 미달성 집단의 그림 향상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두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였다($t=2.52, p<.001$). 즉 목표 달성 집단의 그릿 수준이 미달성 집단보다 더 많이 향상되었다. '러닝하이' 참여자 중 목표달성 집단과 미달성 집단의 자아탄력성 향상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두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t=-.41, p>.05$). 즉 목표달성 집단과 미달성 집단 간 자아탄력성 향상도 수준은 다르지 않았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G 대학교에서 운영중인 저성취 학생을 위한 성적향상 프로그램 '러닝하이'를 소개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그릿, 자아탄력성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 목표를 달성한 집단과 달성하지 못한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과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러닝하이' 프로그램은 저성취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그릿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러닝하이' 참여자의 사후 학업성취도와 그릿이 사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러닝하이' 프로그램이 저성취 대학생의 학업 성과 및 학업에 대한 끈기와 열정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로, 추후 다른 대학교에서도 저성취자 대학생들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러닝하이'에서 목표 달성 여부는 그 학생의 학업적, 심리적 측면에서의 많은 변화를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 목표 달성 집단과 미달성 집단간 사전 학업성취도와 그릿, 자아탄력성 수준은 다르지 않았으나, 프로그램 참여 후 목표달성 집단의 전체 학업성취도 향상도와 그릿 향상도는 미달성 집단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러닝하이'에서 설정한 목표가 학습자가 지정한 1개 교과에서의 성과에 국한되지 않음, 이 목표달성이 전체 성적 향상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즉 이 결과는 1개 교과에서의 성공이 전체 교과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짐을 시사한다. 이 결과가 저성취자 대상 성적향상 프로그램에 주는 시사점은 학습

자에게 스스로 성취가능한 작은 목표를 정하여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전체 성적 향상을 목표로 할 경우, 저성취 대학생에게 지나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현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성적향상과 함께 목표를 달성한 학생의 그릿의 향상도 또한 목표 달성에 실패한 학생보다 컸다는 점은 그릿이 목표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목표한 성적을 얻기 위해 끈기있게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릿이 향상되고, 학점 또한 높게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이는 저성취 프로그램에 흥미를 유지하고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는 그릿에 관한 특강 및 학습컨설팅 등 그릿을 강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저성취자 대상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러닝하이' 프로그램은 저성취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 '러닝하이' 참여자의 사후 자아탄력성이 사전에 비해 유의하게 높지 않았으며, 목표달성 집단의 자아탄력성 변화 정도 또한 미달성 집단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주로 대인관계, 감정통제, 낙관성, 활력성 증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데[27] 이 연구에서의 '러닝하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부각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성취자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첫째, 기존 프로그램들과 같이 학습컨설팅 또는 집단상담과 같은 한 유형으로만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보다 성공한 또래의 모델링, 전문가의 개별 컨설팅, 자신의 학습을 돌아보는 학습 성찰 보고서, 그리고 본인이 지정한 1개 과목의 학점이 목표에 달성할 경우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제공되는 성공경험 등 포함한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성공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때 저성취자가 도전할 만한, 즉 성취가능성이 높은 목표를 계획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그릿을 강화하는 내용을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저성취자들에게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쏟고 끈기있게 공부하는 연습을 시키는 것

이 프로그램 성과에 도움이 된다.

이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우선, 참여자의 특성상 충분한 수의 실험집단과 실험집단과 유사한 성취도를 보이는 통제집단을 모집하기 어려웠고, 프로그램의 특성상 1개 대학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같은 프로그램을 더 많은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한 후속연구가 요청된다. 또한 본 연구의 '러닝하이' 프로그램은 저성취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데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였다. 학습자의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추가한 프로그램으로 수정·보완한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록 전체 참여자의 전 과목 성적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나, 본 프로그램에서 목표를 달성한 학생의 비율은 24.5%로 높지 않았다. 따라서 기초학습능력 부진 학생 대상의 계열별 기초교양과목을 개설[28]하는 등의 학습목표 달성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박덕희, “학업 저성취 대학생을 위한 일대일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 효과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7권, 제6호, pp.375-402, 2017.
- [2] 강순화, 이은경, 양난미, “학업우수 및 학업부진 학생의 학업실태 분석을 통한 대학에서의 학업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2권, 제2호, pp.221-242, 2000.
- [3] 장예경, 양지웅, “대학생의 학사경고 경험과 극복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제14권, 제2호, pp.995-1013, 2013.
- [4] 박아름, 박현정, “발음중심 교수법이 문어 저성취 유아의 읽기와 쓰기에 미치는 효과,” 발달지원연구, 제5권, 제2호, pp.75-93, 2016.
- [5] 김준근, 박은수, “초등학교 영어 저성취 학생들을 위한 정서기반 영어 교수 학습 모형 개발과 적용,” 교과교육학연구, 제19권, 제2호, pp.523-542, 2015.
- [6] 양민화, 서유진, “중학교 학습부진학생의 학업성취향상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지원효과연구,” 특수교육학연구, 제44권, 제2호, pp.285-311, 2009.
- [7] 남창우, 전훈, “교사와 학생의 ICT 활용과 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이 저성취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9권, 제1호, pp.77-97, 2012.
- [8] 김희정, “학사경고자 대상 개별 학습코칭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제28권, 제4호, pp.971-983, 2016.
- [9] 남상은, 유기웅, “대학생 학사경고자를 위한 코칭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실험연구,” 교양교육연구, 제11권, 제1호, pp.281-311, 2017.
- [10] 전보라, 강승희, 윤소정, “학사경고 경험 대학생의 학업적 특성과 집단 학습컨설팅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5권, 제9호, pp.137-160, 2015.
- [11] S. Renzulli, “Using learning strategies to improve the academic performance of university students on academic probation,” NACADA Journal, Vol.35, No.1, pp.29-41, 2015.
- [12] H. Seirup and S. Rose, “Exploring the effects of hope on GPA and retention among college undergraduate students on academic probation,” Education Research International, pp.1-7, 2011.
- [13] 김은지, 강주리, 김정섭, “학습컨설팅이 학습부진 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 및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제12권, 제2호, pp.73-92, 2016.
- [14] 김나미, 김효원, 박완성, “학사경고 대학생을 위한 회복탄력성 프로그램과 동료 멘토링의 효과,” 열린교육연구, 제22권, 제1호, pp.391-412, 2014.
- [15] 주영아, 정희진, 황선희, 김영혜, “학업 저성취 대학생의 자기결정성 및 스트레스 대처전략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3권, 제2호, pp.85-115, 2013.
- [16] 조민아, 고은영, 서영석, “잠재평균 분석을 활용한 학업태도 차이 검증: 대학생 미성취 집단과 보통이상 성취 집단 간 비교,” 청소년학연구, 제19

권, 제2호, pp.55-77, 2012.

[17] A. Barouch-Gilbert, "Academic probation: student experiences and self-efficacy enhancement," *Journal of Ethnographic & Qualitative Research*, Vol.10, pp.153-164, 2016.

[18] M. Houle, *Academic suspension and student adjustment: How students make meaning of their experiences*, Northeastern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3.

[19] 이용진, 양현정, 조성희, "학사경고생의 특성 변인과 교육적 개입 필요성에 대한 탐색," *교육방법 연구*, 제29권, 제1호, pp.161-184, 2017.

[20] A. Bandur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Y:Freeman, 1997.

[21] A. L. Duckworth, C. Peterson, M. D. Matthews, and D. R. Kelly,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92, No.6, pp.1087-1101, 2007.

[22] 정미라, 정은,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가 그릿(Grit)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6호, pp.414-423, 2018.

[23] 하혜숙, 임효진, 황매향, "끈기와 자기통제 집단 수준에 따른 성격요인의 예측력 및 학교 부적응과 학업성취의 관계," *평생학습사회*, 제11권, 제3호, pp.145-166, 2015.

[24] 고미숙,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학 생활 적응,"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0호, pp.280-291, 2015.

[25] 이수란, 손영우, "무엇이 뛰어난 학업성취를 예측하는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과 끈기(Grit),"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제10권, 제3호, pp.349-366, 2013.

[26] 한수정, 김혜원,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탄력성,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Giver, Taker, Matcher를 중심으로,"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9권, 제4호, pp.461-467, 2018.

[27] 박병기, 이선영, 송정화,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교육심리연구*, 제24권, 제1호, pp.61-82, 2010.

[28] 한성일, 이상화, "전문대학 학생의 계열별 학업성취도에 따른 기초학습능력 향상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0호, pp.524-531, 2012.

저 자 소 개

서 은 희(Eun Hee Seo)

정희원



- 2017년 ~ 현재 :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부교수
 - 2007년 ~ 2017년 : 서울여자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직과 부교수
 - 2018년 ~ 현재 : 한국교육심리학회 학교심리위원장
 - 2017년 ~ 현재 : 한국교육학회 편집위원
- <관심분야> : 교육심리, 학습전략, 자기조절학습, 지연행동